

3월 첫째 주  
시기하는 마음을 이겨 내요

■ 본문 말씀: 사무엘상 18장 6~9절 (3월 1일 본문)

■ 포인트: 시기와 질투는 사람을 미워하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 1. 찬양

(새 539)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 2. 기도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저희 가족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 3. 말씀

사무엘상 18장 6~9절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6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 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 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우리말성경>

6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고와 팽과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습니다. 7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8 사울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9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 설명>

- \* 경쇠: 뿔 망치로 쳐서 소리를 내는 옥이나 돌로 만든 악기
- \* 시기: 남이 잘되는 것을 시샘해 미워함
- \* 질투: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시샘하고 미워하거나 싫어함. 지나치게 시기함

## ≡ 본문 이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모든 백성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기뻐했어요. 그때 사울은 자신보다 다윗에게 더 큰 공을 돌리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불쾌해하며 화를 냈어요.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며 질투했고, 일평생 다윗을 경계하며 살게 되었어요.

###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가 이끈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40일간 대치하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나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성읍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했어요. 그 군대에는 다윗도 함께 있었지요. 이들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자리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여인들의 노랫말이 문제가 되었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한 것이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지요. 이 일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어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면서(16:14) 그는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 시점부터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애썼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윗을 칭송하는 노랫말이 사울의 귀에 거슬렸고, 이제는 다윗이 이 나라까지 가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는 마음에 싹튼 시기와 질투심을 계속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계속해서 미워하게 되었어요. 이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지요(18:14~16). 결국 10년 가까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어요. 사실 다윗의 승리는 곧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였고,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그것은 곧 사울의 승리였어요. 그러나 그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여호와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삼상 16:14).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삼상 18:14~16).

## ≡ 4. 나눔

### 1) 백성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이며 노래하자,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8절)

#### ■ 저학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겨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했어요. 기뻐해야 할 사울은 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8절)

#### ■ 유아·유치

사울은 누구를 질투했나요?

### ▮ 질문 가이드

오늘 본문에는 대조적인 두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는 축제 현장에서 기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불쾌해하며 화를 내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 장면을 상상하며 말씀을 한 번 더 읽은 후 질문에 답해 보세요.

### ▮ 인도자를 위한 해설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의 리더인 사울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을 맞이하는 여인들의 노랫소리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다윗보다 지위가 높고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인들의 노랫말 때문에 한순간에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어요. 이 시기심과 질투는 사울의 남은 삶 동안 다윗을 경계하며 죽이려는 마음으로 커지게 되었어요.

2)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편하게 대하기 어려워진 상대가 있나요? 앞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누어 보세요.

#### ■ 저학년

친구를 질투했던 적이 있나요?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이겨 냈나요?

#### ■ 유아·유치

친구나 동생에게 샘이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Ⅲ 질문 가이드

나보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거나 친구가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할 때 샘을 내고 질투하게 되어요. 친구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이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 Ⅲ 인도자를 위한 해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 많아요. 사울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와 힘을 가졌지만,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 때문에 시기심이 생겨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시기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이 마음을 없애 달라고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Tip.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어요. 교만의 이면에는 열등감이 있어서 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고, 시기와 질투로 이어져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지 못하면 이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 5. 감사하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 보세요.

## 6. 기도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없애 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많은 사람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해 주세요.

-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7. 가족 미션

<칭찬하기>

우리 가족이 잘하는 것을 찾아 서로 칭찬해 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다른 이에게 있는 좋은 점을 이야기하며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예) ○○이는 동생의 마음을 잘 이해하네. ○○이는 할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 인사를 잘해서 너무 뿌듯했어.